# 번뇌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 극복해야



新 불교사자성어

㉙ 확탕노탄(鑊湯鑪炭)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체감온도 39도. 가히 화탕지옥이다. 조만간 지구를 녹여 없앨 기세이다. 지구 온난화 현상은 새로운 뉴스가 아닌 오래된 뉴스가 되었다.

이렇게 날씨가 찜통, 불볕더위로 시달릴 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피서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다. 문제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 온 세상이 열탕, 피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 심산유곡이나 바닷가로 가자니 교통 체증이 여간 심한 게 아니다. 게다가 바가지요금은 더위를 한껏 부채질한다. 피서가 아니고 고역이다.

'확탕노탄(鑊湯鑪炭)'은 '뜨거운 가마솥과 용광로 속'이라는 말인데, 고통이 극심함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와전되어 '화탕(火湯)노탄'이라고도 한다. '확탕(鑊湯)'은 팽형(烹刑)으로서 예전에 사람을 가마에 넣어서 삶아 죽이는 형벌을 이르는 말이다. 팽형은 〈삼국지〉나 중국 고대 문헌인 〈통감〉 등에도 종종 나온다. 죄인을 뜨거운 가마솥에 넣어서 삶는 형벌인데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형벌이다.

확탕, 팽형과 관련한 유명한 '칠보시(七步詩)'가 있다. 위나라 문제(文帝) 조비(曹丕)는 동생 조식(曹植)의 재주와 시문(詩文)을 항상 시기, 질투했다. 조비는 동생 조식을 죽이고자 일곱 걸음을 걷는 사이에 시를 지으라고 했다. 만일 7보(步) 사이에 짓지 못하면 팽형에 처한다는 특별법을 발동했다. 이제 동생 조식의 운명은 형 문제의 칠보에 달린 그야말로 슬픈 운명이 되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일곱 번째 발자국이 놓이자마자 조식은 오언(五言) 시를 지었다.

煮豆燃豆萁(자두연두기), 豆在釜中泣(두재부중읍), 本是同根生(본시동근생), 相煎何太急(상전하태급). "콩깍지를 태워 콩을 삶네, 콩은 가마 안에서 우네, 본시 한 뿌리인데, 어찌 이렇게도 급하게 볶아댑니까?"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눈물 쏟아지는 고사이다.

그리고 '로탄(鑪炭)'은 화로인데 용광로를 말한다. 과거 용광로는 숱(炭)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확탕노탄(鑊湯鑪炭)'을 흔히 '화탕노탕(火湯爐蕩)'이라고 쓰고 있으나 확탕노탄의 와전이라고 생각한다.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 '불화(火)'자를 사용해서 '화탕(火湯, 불 속)'으로 쓰게 된 듯하다. 끓는 가마 속이나 불 속, 그리고 용광로 같은 곳이라는 뜻으로, 지옥 또는 현실이 매우 지옥 같음을 상징한다.

지옥 가운데 화탕지옥도 있다. 화탕지옥은 '불지옥'이다. 죄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불 속에 넣는다고 한다. 죽을만하면 꺼내고 집어넣기를 반복한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악행을 가능한 하지 말아야 한다.

전통강원의 교과서인 〈서장(書狀)〉은 대혜 선사의 편지글(서장)을 모은 책이다. 유시랑(劉侍郞)은 당시 장관급의 고급 관료였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세상, 그리고 치열하게 타오르는 번뇌를 피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은 듯하다. 이에 대하여 대혜 선사는 선승다운 명답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

"(거사님)예전에 어떤 젊은 수행승이 노(老)선승에게 이렇게 물었소. '세계가 이렇게 뜨거운데, 어느 곳에 가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노선승이 말씀하셨소. '확탕노탄(鑊湯鑪炭, 가마솥과 용광로 속)' 속에서 피하시오. '뜨거운 가마솥과 용광로 속에서 어떻게 피한다는 것입니까?' 노선승이 말했소. '그 속에는 갖가지 고통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衆苦不能到)'"

치열하게 타오르는 번뇌 망상 극복 방법을 물었는데, '펄펄 끓는 뜨거운 가마솥과 용광로 속에서 피하라'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고도 훌륭한 명답이다. 산속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데, 세속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번뇌가 일어난다면 그런 수행은 별 의미가 없다. 그것은 환경적인 치유일 뿐이다. 번뇌는 정념(正念, 淨念)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번뇌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 극복해야 한다. 이열치열. 현실을 떠나서 번뇌를 극복한다는 것은 난센스이다. 번뇌를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은 번뇌를 괘념하지 않는 것 밖에 없다. 괘념하면 그 즉시 번뇌에 끌려 다니게 된다. 속칭 신경을 끊는 것이다. 그러면 번뇌는 저절로 극복된다. 아니면 확탕노탄 속밖에 없다. 그 속은 500도 이상이 되어서 갖가지 고통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衆苦不能到).

〈윤창화 민족사 대표〉

# 도적 말 타고 도적을 쫓는 격



격절록 강설

㉙ 제10칙 서당난각 2

[評唱 2]

更云 我去彼中 偷得甚物來 乃在這裏賊贓已露. 這僧致箇問端一似如此. 却將去問西堂和尚云 "有問有答 賓主歷然 無問無答時如何" 堂云 "怕爛却那" 古人太煞慈悲 有時孤峯頂上垂手 有時荒草裏橫身 他道 "怕爛却那" 奇特不妨親切.

다시 또 말했다. 내가 저 안에 가서 어떤 물건을 훔쳐 오면 여기에 도둑질한 물건이 드러나게 된다. 이 스님이 물은 것도 마치 이와 같다. 그래서 물음을 가지고 도리어 서당에게 가서 말하기를 "물음이 있고 답이 있으면 손님과 주인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물음도 없고 답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에) 서당은 말하기를 "문드러져 없어질까 두려운가?"라고 하였던 것이다.

고인은 아주 자비로워서 어떤 때는 고봉정상에서 손을 내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친 풀밭에 몸을 가로 누이기도 한다. 그가 말한 "문드러져 없어질까 두려운가?"라고 한 것이야말로 기특하면서도 대단히 친절한 것이었다.

這僧却更去問長慶 慶云 "相逢盡道休官去 林下何曾見一人" 這僧分明去問 是有問有答了 更說什麼如何若何. 惹得長慶恁麼道 又且得不辜負他來問處. 雪竇拈云 "何不與本分草料" 也是騎賊馬趂賊.

이 스님이 다시 장경에게 가서 묻자, 장경이 말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관직을 버리고 떠나겠다고 말하지만, 숲에서 언제 한 사람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라고 했다. 이 스님이 분명 가서 물은 것에는 물음도 있고 답도 있었는데, 다시 (여기다가) 무슨 이러니저러니 말하는 것인가? (하지만) 장경의 이런 말을 야기한 것 또한 더욱이 그가 와서 물은 것을 저버리지 않은 것이다.

설두가 염(拈)하기를 "어째서 본분초료를 주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 역시 도적의 말을 타고 도적을 쫓는 격이다.

❋장경의 답을 선문염송집 염송설화(제25권)에서는 당나라 강서(江西)의 절도사(使) 위단(韋丹)의 시에 동림영철(東林靈徹)이 답을 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위단이 영철에게 보낸 시

王事紛紛無暇日 왕의 일이 분분해서 쉴 날이 없지만 / 浮生苒苒只如雲 덧없는 인생 흐르고 흐르니 단지 구름과 같네. / 已爲平子歸休計 이제 평민(平子)이 되어 돌아가 쉴 계획이니 / 五老峰前必扣門 오로봉 앞에서 반드시 문을 두드리시오."

영철이 위단에게 답한 시

老年心閑無外事 노년에 마음이 한가롭고 바깥 일이 없으면 / 癡衣草座可容身 베옷 입고 풀방석에 앉는 것 몸이 용납할 수 있네. / 相逢盡道休官去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관직을 버리고(休官) 떠나겠다 말하지만, / 林下何曾見一人 숲에서 언제 한 사람이도 본 적이 있는가.

❋선문염송집 제25권(고칙 1110)에서는 본 서당난각화에 대한 원오의 염拈.

"若問崇寧 有問有答賓主歷然 無問無答時如何 對他道 收得安南 又憂塞北"

"만약 숭녕(崇寧, 원오)에게 '물음이 있고 답이 있으면 손님과 주인이 역력한데, 물음도 없고 답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에게 '안남(安南)을 얻고 나니 또 새북(塞北, 북쪽 변방)을 걱정한다' 고 말하리라."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㉙ 이해의 길 9

## 고통과 행복의 길

〈유전연기〉 〈환멸연기〉

내가 좋아하는 붓다의 가르침 가운데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 우리는 대개 첫 번째 화살을 맞으면 그 영향력으로 인해 두 번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맞게 된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접촉 사고라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기분이 상해서 친구와 술 한 잔 나누다가 옆 사람과 싸우는 두 번째 화살을 맞고, 급기야 폭행죄로 경찰에 연행되는 세 번째 화살을 맞을 수 있다.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접촉 사고의 영향력(業)에 이리 저리 흔들린 경우라 할 것이다. 이것이 중생들 삶의 모습이다.

12연기는 대상과 만나면서 겪게 되는 우리들의 실제 모습과 그 원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명(無明)', 즉 연기의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중생살이의 근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무명으로 인해 온갖 부산을 떨면서도 왜 그러는지 모른 채 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무명 속에서 윤회하는 삶, 즉 무명으로부터 노사(老死)에 이르는 과정을 유전연기(流轉緣起)라고 한다.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行)이 있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識)이 있게 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유전연기는 고통의 길이며, 정신없이(mindless)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에 만족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문제의식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한다. 어디를 향하는지도, 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달리기만 했던 발걸음을 '한 템포 쉬고' 반조해보자. 그러면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업의 실타래는 이때부터 비로소 풀리기 시작한다.

업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명을 지혜로 전환하여 괴로움을 일으키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 먼저 무명을 끊고 계속해서 행, 식, 노사까지 끊어가는 것이다. '무명이 멸하므로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므로 식이 멸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돌이켜 끊는 것을 환멸연기(還滅緣起)라고 한다. 유전연기가 고통의 길이라면, 환멸연기는 행복의 길이며 늘 깨어있는(mindful) 삶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접촉사고가 났을 때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즉 업의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순간 속상함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흐름을 끊고 조절할 수 있다.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우리 자신은 깨어있기 때문에 '다친 데는 없으세요?' 라고 말을 건네면서 사태를 합리적으로 수습할 수 있다. 무명이 아니라 지혜가 작동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미친 짓(Insanity)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업의 관성 때문이다. 마치 운전할 때 평소 갔던 길로만 가거나, 강의실에 들어가 같은 자리에만 앉는 것과 같다. 그 길로 운전하고 그 자리에 앉았던 행위가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다음의 행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다. 위에서 예로든 접촉사고의 경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없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반복해왔던 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12연기의 목적은 업의 연결 고리를 끊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자기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 삶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역시 업의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자신을 보면서도 참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이 중요하다. 명상이나 기도, 참회발원 등의 수행은 업의 관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이다. 이런 수행이 깊어지면 내 입에서 '아하, 그렇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럴 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은 가능하다.

어느 불자의 고백이다. 운전할 때 차가 앞으로 끼어들면 습관적으로 입에서 욕이 나오곤 했는데, 불교를 공부한 후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그래, 배운 내가 참는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신화불사

매물안내

| | | |
|---|---|---|
| 법당 | 3포 27평 | 3,000만원 |
| 종각 | 육모정 8자칸 | 1,200만원 |
| 사주문 | 5포. 전면 11자. 측면 10자 | 800만원 |
| 요사채 | ㄱ자. 33평 | 3,300만원 |
| 대중간 | 45평 | 4,500만원 |
| 한옥 | ㄱ자. 33평. 재부 | 1억 2천(신재) |
| 사찰 | 문화재 보유 / 1120평(경기) | 35억 |
| 사찰 | 문화재 보유 / 1200평(서울) | 80억 |

☎ 010-3789-3327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16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 |
|---|---|
| 개강일시 |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 |
| 교육장소 | 달전사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
| 수강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 교육내용 | 상용의식 및 재의식 사물 다루는 법 |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 수강료 | 월 10만원 / 교재비 별도 |
| 준비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 문의전화 | 010-3867-8419 |

사) 대한불교불음원

원장 | 원명 합장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56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9년 9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net FAX : 02)737-5305